

너의 계절에서 빛나길

고등학교 친구들과 여행가는 날, 나는 아버지께 역까지만 태워달라 부탁했다. 놀러 갈 생각에 들뜬 나와 대화를 하던 아버지는 나에게 물었다.

“너 예전에 프라이드¹ 타고 같이 하교했던 친구도 같이 가니?” 그 순간 나의 들뜬 기분은 가라앉아 어느 새 깊숙이 묻어둔 기억 앞에서 서 있다.

봄꽃이 피어나는 3월,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에 와 있다. 낯선 버스를 타고 낯선 골목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을 마주한다.

그 문을 지나 낯선 곳에 도착한 나는 홀로 앉아 주변을 살핀다. 다들 마치 원래부터 이 장소의 주인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럽다. 나만 손님인 것 같다. 평생 손님으로 이 장소를 마주하며 주인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나쁜 상상으로 가득차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그 아이의 시선을 찾아가 눈을 맞췄다.

“안녕? 나는 한설이야. 나랑 친구 하자. 네 이름은 뭐야?”

“아... 나는 하봄이야.”

먼저 다가온 한설이 덕분에 나는 친구가 생겼다, 그 중에서도 우리 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누가 봐도 그 둘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동아리 활동 시간, 한설이가 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다고 했다. 나는 동아리의 장을 맡고 있어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새로운 문을 지난 그 곳에서 나를 처음 맞아준 한설이에게 나는 모든 편의를 맞추어 주었다.

어느 날, 학원을 마친 한설이가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 알겠다고 했다. 어느 날은 자기가 힘드니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했다. 알겠다고 했다. 또 어느 날은 자신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말했다. 알겠다고 했다. 친구니까. 이 정도는 친구끼리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전부 친구에게 맞춰주는 것이 우정인 줄 알았으니까.

나의 하나뿐인 친구 한설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환 일기를 쓰자고 했다. 매일 반복되

¹ 과거 생산된 기아 자동차의 소형차 브랜드

는 교실에서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늘 함께였기에 그리 쓸 말이 많지는 않았다. 주말에는 그저 평범하게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던 기억을 꺼내 적었다. 하지만 교환 일기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설이에게 물었다.

“우리 일기장 아직 못 썼어? 언제 줄래?”

하지만 한설이는 쌀쌀맞게 나에게 대답했다.

“그거 버렸어.”

그 이후 한설이는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친구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빌고 빌었다. 왜 그러냐고,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몇 날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온갖 추리를 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나에게 돌아온 건 단 한 마디였다.

“솔직하게 안 적었잖아.”

난 그 말의 의미를 밤새도록 되짚어 보았다. ‘아, 누구랑 놀았는지 자세하게 안 적어서 그런가? 그런데 교환 일기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열아홉의 나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나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 이 소식을 들은 한설이는 내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와 서서히 나와 멀어지기를 선택한 한설이는 어느새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거리로 사라져 버렸다.

긴 시간이 흐른 지금은 한설이의 마음을 어렵פות이 추측해본다. 아, 한설이는 우정의 이름을 빌려 내게 사랑을 갈구했구나. 뒤늦은 깨달음 뒤에 찾아온 건 원망이다. 그 원망의 대상은 한설이를 향하기도 하였지만 나를 향하기도 하였다.

왜 나였을까. 사랑을 원했다면 우정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말았어야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그렇게 헌신을 바라고, 내 감정을 그리 철저히도 무시했는가.

하지만 정작 나를 더 괴롭히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다. 나는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한설이가 바란 건 우정이 아니었던 걸 난 정말 몰랐을까.

“하봄아. 도착했어. 잘 놀다 와.”

아버지의 목소리에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아빠, 조심히 가. 다녀올게.” 나는 다시 한 번 한설이를 떠올리며 생각한다. 나는 나의 계절에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날 터이니, 너도 너의 계절에서 부디 빛나길.